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

이경림 · 박숙현 · 이영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 부위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체형을 커버하는 디자인의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장류 착용 경험이 많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른 아이템(재킷, 팬츠, 스커트)별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Program Package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대응표본 T-test,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 Duncan's Test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 신체 부위별로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와와의 차이 및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차이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반신의 들레나 너비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팔, 팔뚝, 허리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고, 아랫배가 나올수록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키는 크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다. 둘째, 하반신의 들레 항목에 대해서도 대부분 크거나 굵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불만족하였는데, 힙,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고, 밑위길이는 길수록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다리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른 아이템별 선호와 착용스타일 비교: 재킷에 있어서는 가슴라인과 허리위치 항목을 제외한 칼라유무, 칼라라펠길이, 어깨너비, 소매형태, 허리, 재킷길이, 실루엣 항목에서 체형 요인 때문에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나타났다. 칼라유무에 따른 선호스타일에서는 목 굵기에 대한 만족도, 착용스타일에서는 목 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칼라 있는 형이 선호되었고, 목 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칼라

있는 형이 착용되었다. 칼라라펠길이에 따른 선호스타일에서는 목 길이에 대한 인지도, 착용스타일에서는 가슴크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이 길다고 인지할수록 선호스타일에서는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슴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칼라라펠길이가 긴 형 또는 기본형이 착용되었다. 어깨너비에 따른 착용스타일에서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실제 자신의 어깨길이보다 짧은 어깨길이의 재킷을 착용되었고, 어깨가 좁을수록 실제 어깨길이 또는 실제 어깨길이보다 긴 어깨길이의 재킷이 착용되었다. 소매형태에 따른 선호스타일에서는 어깨너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착용스타일에서는 어깨경사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래글런 소매가 선호되었고, 어깨경사에 불만족할수록 래글런 소매가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에 따른 착용스타일에서 허리둘레 항목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었다. 선호스타일에는 의미 있는 평균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가 굵다고 인지하여 불만족할수록 허리부위의 스타일에 있어 연결형이 착용되었다. 재킷길이에 있어서는 힙 너비 정도와 밑위길이 항목에 대해 선호스타일에서 인지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었다.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밑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힙을 덮는 길이의 재킷이 선호되었다. 실루엣에 있어서는 허리둘레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허리둘레 만족정도에 따라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고 착용하는지의 여부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팬츠에서는 허리위치와 팬츠형태 항목, 스커트에서는 허리위치와 힙 여유분 항목에서 체형 요인 때문에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위치 항목에서 허리둘레에 불만족할수록 High Waist가 선호되었으며, 허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High Waist가 착용되었다. 팬츠 형태 및 길이 항목에서는 종아리 굵기에 대한 인지도 및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힙 여유분 항목에서는 힙 튀어나온 정도에 불만족할수록 힙 여유분이 Loose한 팬츠가 착용되었다. 팬츠 통 항목에서는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아래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Narrow Down 형태의 팬츠가 착용되었고, 허벅지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보통(Normal), 넓은형(Wide), 통이 좁아지는형(Narrow Down)의 팬츠가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에서는 허리위치와 힙 여유분 항목에서 체형 요인 때문에 선호와 착용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났다. 스커트 형태 항목에 있어서 허벅지 굵기에 불만족할수록 A-Line Skirt가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이템별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 재킷은 칼라유무, 칼라라펠길이, 어깨너비, 가슴라인, 소매형태, 허리, 허리위치, 재킷길이, 실루엣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체형 요인 때문에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와 착용스타일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함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의 경우 허리위치 항목에 있어서는 Low Waist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집단 중 High Waist를 착용하는 집단은 무난함 요인 때문이었고, Normal Waist를 착용하는 집단은 유행이나 체형 요인 때문이었으며, Low Waist를 착용하는 집단은 체형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츠 형태 항목에 있어서는 일자형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일자형을 착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무난함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착형 스타일이나 벨보텀 스타일을 착용하는 집단은 체형 요인 때문이었다. 스커트에 있어서도 스커트 허리위치 항목과 힙 여유분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스커트 허리 위치 항목에 있어서는 Low Waist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집단 중 High Waist를 착용하는 집단은 체형 요인 때문이었으며, Normal Waist를 착용하는 집단은 유행이나 체형 요인 때문에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스커트 힙 여유분 항목에 있어서는 힙 여유분이 Fit한 스커트를 선호하는 집단이 Tight한 스커트나 Fit한 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체형이나 무난함 요인이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Loose한 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에 기타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응답 중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